

해묵은 땅값 갈등 끝... J프로젝트 숨통 트이나

기업도시법 개정안 통과...싼값 구입 근거 마련

국내외 경기 침체 여파 투자자 모시기는 불투명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의 부지를 싸게 구입하고, 개발 면적도 줄일 수 있게 돼 전반적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영암과 해남 일대 간척지에 들어서는 J프로젝트는 광주인인 한국농어

촌공사와 땅값 산정 문제로 수 년째 표류하고 있고, 개발 면적이 넓어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전남도는 "기업도시 개발면적 축소,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이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한 것으로 땅값 산정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 이익 배제를 명문화했다. J프로젝트 부지가 농사를 짓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앞서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J프로젝트 삼호·구성·부동·삼포 지구 땅값으로 전남도는 3.3㎡당 2만원, 농어촌공사는 5만원 가량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반례, 재감정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또 330만㎡ 이상 개발하게 돼 있는 면적도 주변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면 절반가량 줄일 수 있도록 최소 면적도 완화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 사업 지구내 땅값을 시가의 절반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게 돼 민자유치 등 사업 추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 경기침체로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삼포지구는 투자협약까지 했던 중국 투자자가 포기하는 등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J프로젝트는 구성지구(2.96km), 삼호지구(8.66km), 삼포지구(4.3km), 부동지구(1.4km) 등 4곳으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광주가 원하는대로 해야"

與 김무성·심재철 의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광주일보와 인터뷰(8일자 1면)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8일 당 공석회의에서 "5·18 기념식 주제가로 선정해 유가족과 광주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5선의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5·18 기념식에서 오랫동안 불러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5·18 기념 행사용의 별도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어머니·아버지 고맙습니다" 8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어머니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이전 '한전 KDN' 큰일났다

SW산업진흥법 발효로 경영위기

매출 최대 90% 줄어...대책 시급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한전 KDN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발효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따르면 한전 KDN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대기업의 참여 관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W 산업진흥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매출이 30% 가량 줄어드는 등 대규모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4 분기 한전 KDN의 전력 SW 관련 공공부수 수주는

7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최소 50%, 최대 90%의 매출 감소와 함께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지방 이전 재원 확보 차질은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해킹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전 KDN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공공기관과 전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의 면제를 하는 정부 고시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한전 KDN이 다시 한전에 통합하

업체가 없어 IBM과 HP 같은 외국계 IT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사이버 해킹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전 KDN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공공기관과 전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의 면제를 하는 정부 고시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한전 KDN이 다시 한전에 통합하

어 전력 ICT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정치권 전반에 강하게 불고 있어 한전 KDN의 특수성이 배려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 한전 KDN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만 민주당의 원실 관계자는 "한전 KDN은 나주 혁신도시의 중추 기관이라는 점에서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순천만정원박람회서 헤르만 헤세를 떠올리다



(27) 정원

오월의 눈부신 신록을 무엇이라 표현할까. 산들거리다고 해야 할까. 향기롭다고 해야 할까. 대기의 알맞은 온도는 누가 또 이렇게 맞추어 놓았을까. 오월의 아름다움은 확실히 인간의 영역 밖인 듯 싶다.

며칠 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왔다. 나무와 꽃이 아직 어리긴 했지만 햇살과 바람이 한데 어우러져서인지 자연의 환희로 찬란했다. 정원이 오랜 시간의 축적 없이도 기적 조성이 수 있었었던 것은 '순천만'이라는 자연의 선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 크고 작은 정원 사이를 정원의 철학자이기도 했던 헤르만 헤세(1877~1962)와 함께 거닐다.



헤르만 헤세 작 '포도나무가 있는 정원'

헤세는 작가로서 글을 썼던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정원 가꾸기에 보냈다. '화가 헤세'이기도 해서 39세 되던 해부터 독학으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00여점의 수채화를 남겼다. 수채화 '포도나무가 있는 정원'은 헤세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스위스 로가노지방 몬타놀라의 붉은 집인 카사 로사의 정원을 그린 그림이다. 포도넝쿨을 지나 경사진 잔디밭을 내려가면 갖가지 색채의 꽃과 딸기, 약초, 채소 등을 심은 화단이 펼쳐진다. 담백한 수채화는 헤세의 글이 주는 느낌 그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조가 잔잔하다.

헤세는 풀과 나무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담은 책 '정원 일의 즐거움'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헤세는 생수를 기다리는 설렘, 생명이 움트는 기쁨, 흙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순환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헤세의 글을 따라가노라면 땅에 무릎 꿇고 허름한 작업복에 밀짚모자를 쓴 헤세바라기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가까이 다가온다. 헤세에게 정원은 혼란스럽고 고통에 찬 시대에 영혼의 평화를 지키게 해주는 장소였던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의만평 - 김중두

4월 임시국회 끝
특별내려온 법안무안
광주
소재
신

도대체 기억이 나기는 하는거나?

세기보청기

세기의무대는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광역시 47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광역시 47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